

기초참고봉사 : 정보이론

루이스 쇼즈 저
홍 욱 자 역
연대도서관 사서

역자주 : 본논문은 RQ 1974년 춘계호 pp. 199-204에 실린 *Basic Reference: An Information Theory*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저자인 루이스 쇼즈(Louis Shores)는 후로리다 주립대학교 도서관학과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폭팔을 위한 내파

처음부터 기초참고봉사는 조정(conciliation)의 정보이론이었다. 참고봉사와 정보과학의 양극단 사이에서 기초참고봉사는 백과사전 편찬자들에 의한 오래된, 정보에의 접근 방법을 통하여 하나의 중용을 추구해 왔다.

1937년 미국도서관협회는 Basic Reference Series¹⁾의 첫번째 책을 출판하였다. 그 이후 36년동안 참고봉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많은 선생들과 학생들은 이 세계의 도움에 감사하여 왔다. 미국도서관협회에서도 필자가 196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Isadore Gilbert Mudge 상을 받을 때에 그 보도자료에 “참고사서의 성서라고 불리워지는……그와 같은 종류의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교과서……”라고 하였고, Mudge상에는 “그 분야의 고전”²⁾이라고 쓰였다.

그러나 이런 칭찬은 여러 해가 지나면서도 결코 만장일치가 되지는 못하였다. 몇몇 사람들은 Basic Reference Series가 지지하고 있는 이론과 실제 양자를 실로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어떤 보고서에서는—이 보고서는 필자가 중국—버마—인도전선에 군인으로 파송되었을 때 나왔기 때문에 필자는 결코 보지는 못했지만—한 동료가 구두로 전한 바에 의하면 「Basic Reference Book」의 1937년도 판은 좋은 교과서가 갖출 모든 것에 만족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참고봉사를 가르치는 어느 선생은 왜 그의 학급에서 The Basic Reference Series를 교과서로 사용하지 않는가를 알려주었다.

참고봉사 이론과 정보이론에 대한 그러한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고 또 분명한 것이었다. 필자는 항상 이런 차이점들에 자극을 받아, 가설과 이론을 재검토하여 왔다. 그러나 필자를 가장 곤

란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전문직을 무시하는 점, 특히 참고봉사이론이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참고사서직을 무시하는 점이었다.

그 자신 존경할만한 이론가로 알려진 고 피어스 버트러(Pierce Butler)씨는 Chicago Graduate Library School Institute³⁾에서 참고봉사이론을 경시하는 풍조를 퍼트렸다. 그것은 그 당시에 엄연히 진실은 아니었다. 1974년에 그것은 더욱 더 진실성이 희박하다. 도서관학 문헌중에서 참고봉사이론에 대하여 97개 정도 인용한 書誌目録이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카드포 파일되어있다. 필자의 “Quantity writings as tabulated in the Southern California Study of the Writing Habits of Librarians”⁴⁾에서 참고봉사이론에 대해 출판된 단어를 약 십만개로 추산하였다. 아마 異論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말 해야할 대부분은 우리중의 많은 사람이 異議를 실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이 나쁘다는 것이다.

“Basic Reference” 세대가 거의 사십년이 지났으니 지금 기초참고봉사이론의 몇가지 요소를 다시 요약해 보는 것도 적절할 시기라고 본다. 여기 몇개의 요소를 두개의 정보진영, 즉 가끔 서로가 파소 평가함으로써 고통을 당하는 참고봉사와 정보과학 사이에 가능한 화해(조정)로써 제시한다.

순차로, 기초참고이론의 구성요소는 전통적 참고봉사와 현대정보과학 양자에 각각 종사하는 동료들에 의해서 재검토될 것이다. 대서양의 양편에 사는 참고사서, 정보과학자, 그리고 도큐멘탈리스 선일자들과의

1) Louis Shores, *Basic Reference Books* (Chicago: ALA, 1937, 1939); *Basic Reference Sources* (1954).

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News Release April 10, 1967, Claire Leeds Wray, Director of Publicity/Public Relations, San Francisco Conference.

3) Pierce Butler, “Survey of the Reference Field,” *Reference Function of the Library* (Chicago: University Pr., 1943), p.1-15.

4) Masse Bloomfield, “Writing Habits of Librarian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7: 109-19 (March

오랜 교제와 깊은 존경심이 필자로 하여금 독자들과 더불어 기초참고봉사 이론에 대한 최소한 이들 구성요소에 관해서 최종적인 관심사(last testament)를 함께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 (1)정보과학기술의 조정, (2) 총체적 도서개념 (3) 정보교육 (4) 사회에서 도서관의 정보역할에 대한 재 정의.⁵⁾

정보의 두 문화

1959년 찰스 퍼시 스노 경 (Sir Charles Percy Snow) 은 “두문화와 과학적 혁명”⁶⁾이라는 서명의 자주 인용되는 논설집을 출판하였다. 스노경은 그 책에서 현대 사회에는 과학문화(The cultures of the sciences)와 인문학의 문화 (The cultures of the humanities)사이의 논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화해가 가능하면서도 두 문화는 당연히 그들이 이해하여야 하는 것만큼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Basic Reference”는 약 20년전에 그 정보의 영역안에서 서로 대응하고 있는 논쟁을 인정하였다. 피자가 처음 그것을 통감한 것은 1930년에 Library School 대학원 졸업후의 연구를 새로 Chicago Graduate에서 시작하였을 때였다. 처음에 콜롬비아도서관학교 대학원과정에서는 그 당시까지 필자의 도서관적 경험에서 인문과학적인 매력을 강화하여 왔기때문에 GLS의 처음 몇주일은 실로 과학적인 혁명이라고 할만하였다.

다그라스 웨플스(Douglas Waples)의 유명한 연구세미나와 칼 홀징거(Karl Holzinger)의 통계학의 영향력은 이 영문학전공자로 하여금 인문학문화에다 등을 돌리게한 정도였다. 웨플스와 타이러(Tyler)가 공동집필한 “사람들은 무엇을 읽기를 원하나”⁷⁾가 1931년에 출판되었을 때 “Basic Referece” 집필을 위한 한 구상이 떠올랐다. 통계학적방법의 기술지도 아메 흑백인 대학생들의 독서 관심사의 비교 연구를 하면서 필자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참고도서를 위한 연습을 하였다⁸⁾ 휘스크(Fisk) 대학교의 사서로 일하면서(1928—33) 필자는 도서선정을 과학적방법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주제가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과학 문화의 영향은 여러 방향으로 나타났다. 세계 제2차 전쟁이 발생할 당시까지 필자는 도서관학 강의실에서(GLS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도서관학 문헌이 과학적인 방법의 결과로 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파를 구별하도록 가르쳤었다. 설문, 상관관계 계수, 공식을 푸는 문제와 해결, 생산공정일람표 작성등등에서 학생과 선생의 눈을 기쁨에 충추도록 하였다. 하나님 의 이 세계를 7일 낮과 밤동안 만드실때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정보과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전통적 참고봉사는 과학문화를 설명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과거나 저급이나 자료보다는 방법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참고봉사 개척자들과 교수들이다.

최소한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Library Literature”를 조사해 보면 많은 동료들이 여러 관종의 도서관에서 참고질문에 관해서 조사하였는가를 발견할 것이다. 질문의 분류는 종별주제, 질문자, 응답에 요하는 시간, 학교와 대학의 교과과정과의 관계별로 나누어 시도되었다. 이 몇몇조사에 대한 요약을 “Basic Reference Source”의 첫장 「정보의 기능」에서 찾아볼 수 있다.⁹⁾

참고봉사 교수법(Reference teaching)에도 마찬가지로 흔들이추(錘)가 스스로 참고도서를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질문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흔들렸다. 모든 학습은 그당시에 배우고 있는 참고도서의 단위에 관해서 해답을 해야하는 질문의 목록이 항상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법을 교수(Method teaching)하는 것이 점차로 연구계획을 통해서 강조되었고 톰 갈빈(Tom Galvin)에 의해서 그렇게 창의적으로 취급된 “사례방법”(Case method)을 통해서도 강조되었다.¹⁰⁾

우리가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처음 참고봉사 과목을 전통적인 인문과학과 당시 영국과 대륙에서 도큐멘테이션의 혁명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던 과학, 그리고 미국과 기타 지역에서 점차 나타나는 정보과학 사이의 절충으로 조절하기 시작함에 따라 참고봉사와 정보과학에서 실습과 교수(教授)의 양자에 방법과 과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두 문화는 “정보위기”에서 뚜렷하게 들어나 있다.¹¹⁾

그러나 인문주의적인 균형에 대한 필요 또한 존재한다. 필자는 과학적인 방법에 더욱 더 파고 들었기 때문에 과학적방법의 한계점을 불가피하게 다시 발견하였다. 몇개의 철학적 견해(philosophical readings)는

1966).

5) S.C. Bradford, *Documentation* (London: Crosby Lockwood, 1948).

6) C.P. Snow, *The Two Cultures and the Scientific Revelation* (1959).

7) Douglas Waples and Ralph Tyler, *What People Want to Read About* (Chicago: American Library Assn.-Univ. of Chicago Pr., 1931).

8) Louis Shores, “Comparison of the Reading Interests of Negro and Whit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Negro Education* (1933), p.460-65.

9) *Basic Reference Books* (1937), p. 347-59.

10) T.J. Galvin, *Problems in Reference Service; Case Studies in Method and Policy* (New York: Bowker, 1963).

극한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접근방법의 우월성을 상기시켰다. 예를 들면 일찌기 필자가 “*Colliers Encyclopaedia*”를 편집할 때에 당시는 남가주대학에 있었고 최근에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동료가된 철학교수 William H. Werkmeister의 저서 “과학적방법”에서 필자는 자극을 받았다.¹²⁾ 결론인 「과학의 편견과 한계」에서 웰크마이스터 박사는 아주 명석하게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 (1)“지식은 물리적인 사물의 전지에서만 오로지 설명되어야 한다” (2)“과학을 통하는 방법을 제외하면 진실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과학의 업적에 대해 깊은 존경을 가지고 특별히 근사치의 영역에서 필자는 존재의 신비속에 과학의 자료와 방법을 초월하여 무언가 암시되는 어떤 것을 발견하였다. 모든 지성적인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베르넬의 영웅교향곡의 첫 음절이 울릴때 마다 Haeckel의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수 있는 돌연한 전망에 대하여 거듭 오한을 느끼는 청취자의 마음속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는 영혼에 일어나는 일을 말로 할 수 있으며 공식화 할 수 있겠는가?¹³⁾

많은 과학자들도 사실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독점에 대해서 감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세기말의 물리학자 William Crookes경은 초물리학적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물리학회 활동을 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¹⁴⁾ 최근까지도 아이오와 대학교의 천문 물리학과 과장이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고밀도 방사능대를 발견하여 그 이름이 방사능대에 붙여진 James Van Allen박사는 “모든 진리가 과학적 판단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⁵⁾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난지 4년후에 헝두교 교사들이 초과학적 지식을 가르치고 실행하였던 인도에서 필자는 우리의 도서관 훈련을 과학문화에 완전히 항복시킨데 대한 염려가 커졌으며 그러한 염려는 필자를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되돌아가게끔 하였다. 최근 몇년동안에 기초참고봉사 이론은 우리의 정보전달에서 이 두 문화를 조정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기초참고봉사는 Chicago Graduate Library School의 초창기에는 과학문화에 몰두하기 시작했었다. “1935년 봄, 인가된 도서관학교의 참고봉사 담당 교수에게 편지와 체크리스트가 배달되었다.” 그리고 학술, 공공, 특수, 학교 도서관의 참고봉사 개척자들에게 어떤 참고도서가 질문에 대답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가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편지와 체크리스트가 배달되었다.¹⁶⁾ 그러한 통계적 조사를 위한 아이디어는 처음 1927년에서 28년 사이에 콜럼비아도서관학교학생이었던 우리가 배운 인문과학적 참고봉사

강의에 의해서 자극되었고 Isadore Gilbert Mudge와 같은 우리를 고무시키는 선생들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자극되었다.

“Guide to Reference Book”에서 어떤 타이틀도 배기를 싫어하는 마음때문에 가끔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그 책에 수록된 만종의 모든 참고도서에 대해서 범위 배열등의 암기를 과중하게 강요하기도 하였다.¹⁷⁾

이 타이틀중에서 불과 얼마 안되는 것만이 주로 참고업무에 사용된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콜럼비아대학시절에 이러한 참고도서가 어느것인가를 결정하는 유효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결단이 생기고 있었다. 만약에 4개종별 도서관에 들어오는 모든 종류의 질문에 90% 대답할 수 있는 책 100권에 대한 하나의 목록을 만들 수 있다면 학생들은 이 타이틀들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리스트는 참고도서 선택에서 핵심적인 수집(collection)이 될 것이다.

이 리스트를 결정짓기 위한 유효한 방법은 시카고의 GLS에서 가르쳤던 과학적연구방법 과정에서 시사되었었다. 응답에 대한 통계적인 숫자가 최초의 Basic Reference의 핵심리스트에 대한 기초가 되었다. 자료 선택의 이론과 도서관의 정보기능을 위하여 그 이론을 사용한 것이 1963년 USOE기금으로 착수된 본크(Bonk)의 연구와 도큐멘테이션과 정보과학의 문헌에 있는 여러 개의 “인용빈도”(citation frequency)와 같은 그러한 많은 조사연구를 하게 하였다.¹⁸⁾

참고봉사에 관한 문헌

인용빈도(Citation Frequency)이론에 대한 설명을 전개 하기 위하여 과학문화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의 훌륭한 참고도서들을 새로히 음미하게 되었다. 사서로 전향한 한 영어선생의 인문주의는 여기에 문학전형식(literary form)인 레퍼란스가 있다. 즉 시

11) *Science, Government and Information...*(a report of the President's Science Advisory Committee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1963]), p.7.

12) William Werkmeister, “Scientific Method,” *Collier's Encyclopedia* (1969), v.29, p.500-508.

13) E.H. Haeckel, *The Riddle of the Universe*(St. Clair Shores, Mich.: Scholarly, 1899).

14) J.B. Rhine, *Progress in Parapsychology* (Durham, N.C.: Parapsychology Pr., 1971), p.3-9.

15) James Van Allen, Interview, *The Tattler* (30 Sept. 1973), p.7.

16) *Basic Reference Books* (Chicago: ALA, 1937), p.347-59.

17) Isadore Gilbert Mudge, *New Guide to Reference Books* (1923). Out-of-print.

18) W.J. Bonk, *Use of Basic Reference Sources in Libraries* (Washington, D.C.: USOE, 1963), p.1-20. (compare with citation 16)

나 회곡, 소설, 수필 등 영문학과에서 전 과정을 마치는 문학형식 못지않게 가르칠 가치가 있는 문학적 양식(Reference)이 있다는 점차적인 인식과 더불어 나타났다. 왜 필자의 영문학과는 훌륭한 참고문학을 인식하지 못했었나? 왜 '뉴욕타임스'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문학평론단은 참고도서를 평가하고 비평하는데 좀더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까? 더욱더 불편하였던 것은 1938년 이전의 도서관학 전문잡지는 단 한 권도 참고로서 서평을 위한 주요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1937년에 "Basic Reference Book" 출판이후에 필자는 학술잡지와 전문교육잡지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서관학 전문잡지에 그들이 참고문헌에 대한 서평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침투노력을 시작하였다. 1937년말에 'Wilson Library Bulletin'의 편집자 Stanley Kunitz는 필자의 제안에 찬성하여 그 잡지에 서평란을 설치할 것을 발표하였다. "최신참고도서"라는 난이 1938년 1월에 신설된 것이다. 그래서 1942년 초가를 전장(戰場)에 나가기 전까지 필자가 그것을 편집하였다. 필자의 제안으로 동료이자 친구인 France^s Neel Cheney가 편집을 인수하였다. Cheney 박사의 편집책임하에 참고문헌은 학술적 서평에서 결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성장을 가져왔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필자는 Review Media의 침투를 계속하였다. 각종별 도서관에 따라 주의를 기울인 신문, 잡지들이 최근의 참고문헌을 규칙적으로 수록하였다. 공공도서관직쪽을 더 지지하는 "Library Journal"에 필자는 Top Ten 선정의 특집에 덧붙여 참고도서의 연간 체크리스트를 시작하였다.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에는 "최신참고도서"란을 신설하고 편집하였다. 이들 양자는 계속되었으며 "Annual Checklist"는 성인봉사부(ALA)의 위원회에서 계속하였다.

학술적 서평중에서 획기적인 성공은 당대시 '뉴욕헤럴드 트리뷴'의 편집자 Irita Van Doren과 Walt Whitman에 의해서 창설된 "Brooklyn Daily Eagle"지와 의 회견에서 시작되었다. 두개의 대도시 신문들은 참고 문헌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동의하였고 서평을 하기 위한 새로운 참고도서 추천을 필자에게 의뢰하였다. 가장 커다란 침투는 Norman Cousins가 'Saturday Review'에 최신 참고도서의 'annual round up'을 신설하기 위해 필자를 찾아 왔을때 일어났다. 필자도 처음 5년동안 이것을 편집하였다.

기초참고봉사에서 참고문헌의 서평인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후련의 양진영 즉 참고봉사 기술과 정보 과학에 종사하는 필자의 동료들이 연구조사에 관심을

갖는 일이었다. 아마도 만약 필자가 연구중에 있는 동료들 즉 정보과학자 뿐만 아니라 참고사서들로 하여금 최근에 행하여 지는 것보다 더욱더 주의깊게 과거와 현재의 훌륭한 참고도서를 연구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이 양자는 그들 방법의 기원을 발견하였을 것이 다라고 이론화하였다. 영국의 연간지 "Progress Library Science" 1967년도 간행물의 한 에세이에서 필자는 기초참고도서에도 정보검색을 위한 중요한 「system design」이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¹⁹⁾ 「Thesaurus」 같은 그러한 최신 용어의 「Embryos」가 런던의 한의 사인 Peter Mark Roget에 의해서 1852년에 출판된 비자모순 사전에서 발견될 수 있다. ; Printout index 형태는 「Ames Comprehensive Index to U.S. Government Publications, 1881—1893」에서 찾아볼 수 있고 거의 잊어버린 여러가지 검색방안들이 과거와 현재의 훌륭한 백과사전에 존재한다.²⁰⁾²¹⁾

정보과학자나 참고봉사 전문가 양자가 참고문헌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일은 자료검색에 대해서 어떤 독특한 Systems designs을 나타내는 기초참고도서의 서문을 다시 읽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아이디어'는 하바드대학 총장 Charles W. Eliot가 유명한 책의 서문과 Prologue들만 전적으로 수록한 그의 저서 "Harvard Classics" 제39권에서 강조하고 있다.²²⁾ 앞으로 어떤날 참고사서나 정보과학자 또는 이들 양자가 합동 편집으로 훌륭한 참고도서들의 서문을 종합한 그러한 도서를 편찬하게 될지도 모른다.

총체적도서(the generic book)

기초참고봉사 이론에서 필수요인은 총체적도서에 대한 개념이다. 역사를 통해서 인류는 여러가지 형태로 의사소통을 해왔다. 문자화한 형태는 고대 점토판과 설형문자, 비문으로부터 양피지와 파피러스, printing press, 그림, object, 사진, 슬라이드, 투명화, 영화, 음반, 자석테이프와 「시청각」으로 함께 증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범위에 이른다. 이 모든 것은 컴퓨터의 조력과 machine programmed media에 의해서 늘어났다. 만약 이들 시청각적 체제에 촉각, 미각, 그리고 후

19) Louis Shores, "Encyclopedias and Information Systems Design," in *Progress in Library Science* 1967, p.116-33.

20) P.M. Roget, *Thesaurus of English Words and Phrases* (New York: St. Martin's Pr., 1965).

21) J.G. Ames, *Comprehensive Index to the Publicatio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ashington, D.C.: GPO, 1965).

22) C.W. Eliot, *Prefaces and Prologues to Famous Books* (New York: Collier, 1938), v.39 (Harvard Classics).

각과 같은 그런 감각적 매개물을 더 한다면 그는 총체적도서의 정의(개념)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Saturday Review' editorial에 소개된 '총체적 도서'의 개념은 「인간의 가능한 통신수단의 총체」라고 정의된다.²³⁾ 후기 이 개념에 대한 확대된 설명이 "Instructional Materials"라는 책과 기타 여러 기사에 "의사전달의 모든 매개체에 대한 체재분류표 (format classification)로 소개되었다."²⁴⁾ 모든 감각적인 매개체에 최근에 과학적으로 연구되어지는 정신감응, 투시력, 예지, 정신측정 psychokinesis 등 아마도 지금까지 지적된 인간의 의사소통의 모든 가능한 수단이 합쳐졌을 때 이것이 총체적 도서이다.²⁵⁾

정보는 통신이고 지식의 수용이기 때문에 주제와 정도는 물론 통신조직과 체제도 정보흐름을 하는 우리들 누구나가 아직적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왔던 것보다는 더 큰 의의를 갖는다. Marshall McLuhan에 의해서 선포된 최근 극적인 말은 하나의 중요하고도 상대적 발언이었다 : 중개물의 체재는 의사전달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²⁶⁾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했으나 시청각 개혁운동가인 우리들의 대다수는 1935년 이래로 필자가 하여왔던 것과 같이 이 점을 주장하여 오고 있다. 도서관학자와 시청각학자 사이의 커다란 분열은 마침내는 플로리다의 강계결혼증(shotgun wedding)을 낳게끔 결과를 가져오고 그때 'National joint ALA-NEA Media Standards'를 만들었고 media format로 전개되었다.²⁷⁾

도서관과 사서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시청각운동에 저항했기 때문에 지식소통이 자주 체재상의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것은 특히 도서관의 정보기능에 영향을 미쳤다. 도서선택은 인쇄물만을 의미하고 시청각자료는 비책자로 유리시킨테에서 도서관의 정보기능에 영향을 미쳤다. 총체적도서의 개념에는 '비책자'라는 것은 없다. 필자는 그러한 용어가 언어도단임을 누차 지적하였다.

도서관의 정보기능이 재래의 도서관 전통으로 내려오던 대로 책에 대해 한정된 정의로 제한된다면 지식의 수용뿐만 아니라 지식의 전달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기초참고봉사 이론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식은 의사소통과 교육환경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체재속에서 의사전달이 될 수 있고 또 터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은 체재법주종의 하나이다. 그것은 전체 매개 병기고중에서 정보검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체재종의 하나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고 가르쳐 지지도 않는 다른 체재들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정보전문가가 더 연구하고 사용하여야만 한다. 이

것은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 인쇄물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최종 분석에서 엔젠가 Kayserling 백작이 "creative understanding"이라고 일컬었던 것에 대한 해결점이 될지도 모르는 초감각에 의한 감각의 확장을 의미한다.²⁸⁾

정보교육과 사회

궁극적으로, 지식은 연구를 조장시키기 위하여 전달되는 것이다. 기초참고봉사이론의 열쇠는 "출선력"을 가진 "검색"의 증가이다. 1952년에 풀브라이트 기금으로 여러 영국도서관의 정보기능을 비교 연구하던 필자는 그 말년에 영국도서관협회로부터 Bournemouth회의 "연례강연"을 위한 초청을 받았다. 대서양의 양편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서관정보기능의 비교양상을 보고하는 이 논문은 기초참고봉사 검색의 증가에 대한 최초의 언급을 포함하였다.²⁹⁾

이제까지는 참고봉사의 모든 정의가 독자로부터 시작되는 질문에서 "그들을 돕는것"이라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도서관정보기능에 대한 이개념은 19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ALA에서 출판하기 시작하였던 최초의 교과서들중에 "참고봉사이론"이라는 제목의 한 장에 요약되어있다. 참고봉사에 이 이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스무명이 넘는 참고봉사(학) 권위자들의 저술들은 물론 James Ingersoll Wyer의 책 "참고업무"도 경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단지 하나의 방백으로 주시해야만 한다.³⁰⁾

Wyer박사는 "독자를 보조하는 이론"의 확대 설명에서 세계의 학파를 구별하였다 : 질문자가 그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독자를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여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보수파 ; 독자가 어떤 책의 부록을 떼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응하는

23) Louis Shores, "Books: Continuous Communicability," *Saturday Review* 41 : 26(22 March 1958).

24) Louis Shores, *Instructional Materials* (New York: Ronald, 1960), p.14.

25) Rhine, *Progress in Parapsychology*.

26)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et al.* (New York: McGraw-Hill, 1964).

27) ALA-NEA, *Standards for School Media Programs* (Chicago: ALA, 1969).

28) H.A. Keyserling, *Creative Understanding* (New York: Harper, 1929). Out-of-print.

29) Louis Shores, "A Frame of Reference," in *Proceedings and Papers of the Bournemouth Conference of the Library Association: The Annual Lecture,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52, p.98-105, and in the Library Journal, 1953, 78 : 88-93, and in several anthologies. Contains redefinition of reference as "the promotion of free inquiry."*

30) J.I. Wyer, *Reference Work* (Chicago: ALA, 1929), Chapt.1.

것만 제외하고는 참고사서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어야 한다고 극단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 중용학파는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중용을 제시하였다.

기초참고봉사에서 도서관정보이론에 대한 이 세가지 이론들은 그 이론이 전개되는한 변호할 수 있는 반면 수동적이었다. 즉 그 이론들은 사서가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질문자가 질문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상당한 정도까지, 질문을 제기하는 질문자는 참고봉사와 정보과학 양자를 계속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도서관은 사회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회가 질문을 하고있지 않는다면 도서관이 질문을 해야만 한다. 이것은 학교, 공공 또는 학술이나 특수도서관, 어느 지역사회 수준에서나 사실이다. 어느정도까지 학술, 공공 그리고 학교도서관들도 학과과정과 그밖에 알맞는 문제들을 예견한다. 정보과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나 selective dissemination에는 주도권이 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질문을 촉진시키는 정보의 사명은 혁명보다는 진화를 통하여 사회의 개혁을 지도할 수 있다고 기초 참고봉사는 이론화하고 있다. 1968년 대통령선거절에 Denver Metropolitan Library Society에서 행한 연설에서 필자는 New England 도시에서 3만여도서관이 모였던 대회를 부활시키는 것이 그렇게나 많은 격렬과 파괴의 원인이 되었던 60년대의 가두행진보다 더욱 더 훌륭한 의사전달이 되리라는 것을 제외하였다.³¹⁾ 이와 유사하게, 필자는 사서와 정보과학자가 이

들 양진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온 보조적인 검색노력 뿐만 아니라 연구 그 자체에 활발히 참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자유로운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필자는 전통적 도서관 학자와 정보과학자 양편이 모두 백과사전 편찬자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시 검토 할것을 촉구하였다. Collier's나 기타 다른 백과사전 편집에서 필자는 백과사전편찬자의 방법을 "의미의 추구"라고 Collier's의 편집실에서 요약하였다. 아무리 많은 유리된 사실들이 노출되었다해도 거기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같은 수의 인간의 내파(implosion)가 있었다. 그 후자는(내파)는 참고봉사 기술에 의해서 사용되는 기초참고자료를 시작하였고 정보과학의 컴퓨터에 의한 검색으로 계속 이어졌다. 몇해 안가서 발달하는 초 심리학이 컴퓨터보다는 정신감응, 예지가 얼마나 더 효과적이고 믿을만한가를 증명할 수있게 되리라는 것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32), 33)}

기초참고 봉사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정보내파를 위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즉 현재 검색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의 추구'에 예속시킬 하나의 Gestalt를 계속 찾고 있다.

31) Louis Shores, "The Library Dream" (unpublished address to the Denver Metropolitan Library Association, November 1968, excerpts of which appeared in the *Denver Post* and Associated Press dispatches, under headline "Demonstrations Have Failed").

32) Rhine, *Progress in Parapsychology*.

33) J.G. Pratt, *ESP Research Today* (Scarecrow, 1973).

各 圖書館 必携의 參考文獻

R. R. BOWLER COMPANY

BOOKS IN PRINT: Author Index: Title Index 1974, 4 vols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74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5/e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e

MYCUIE WHO'S WHO, INC.

Who's Who in America, 38/e
Who's Who in the World, 1/e

GULF BRANTON

Courant, M.	Bibliographie Coreenne, 3 vols	\$ 90.00
Howorth, H. 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4 vols.	\$ 200.00
Kerner, R. J.	Northeastern Asia, a selected bibliography: contributions to the bibliography of the relations of China,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Manchuria, and eastern Siberia, in Oriental and European languages, 2 vols	\$ 57.50

■ 弊社에서는 上記 出版物의 韓國總販으로
註文을 拜受하고 있아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株式會社 汎文社

서울 鍾路區 鍾路 40 電話 (72) 5131-33